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인민은행, 3년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함.
 - 인민은행은 이번달 20일부터 1년물 정기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모두 0.25%p 전격적으로 인상하고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2007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정기예금과 대출금리가 각각 2.50%, 5.56%로 상승함.
 - 발표 직후 원유, 금 등 원자재 가격과 해외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함.

-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과열 조짐을 잠재우는 한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절상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임.
 - 이번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의 배경에 대해 가뭄과 홍수 피해에 따른 식량작황 부진으로 식품가격이 급등하며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해 정부 목표치 3%를 2개월 연속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
 - 또한 그 동안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출 억제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금리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달러화 자금이 유입되면 위안화 환율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원하는 미국과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시각도 존재함.

(인민일보, 로이터, 10/20)